

## 계란등급제 시범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야...

◇ 취재 / 김동진 기자  
(dj@poultry.or.kr)

**지**난해 12월 12일 대구경북양계농협 대구집하장에서 계란등급제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채란 관련인들은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큰 관심과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계란등급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신선하고 위생적인 계란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생산자와 유통상인들에게 공정한 계란유통을 유도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나 계란등급제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정부와 생산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접근하는 과정에서 서로간의 입장차이로 인해 난항을 겪고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고는 등급제 시범실시 이후 추진되고 있는 계란등급제 시범실시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 1. 계란등급제 시범실시 현황

지난해 10월, 서울경기양계축협 용인집하장 등 4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기로 했던 등급제가 생산자들의 조정요구로 연기되었다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생산자들의 주된

의견은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경우 다수의 등급을 받지 못하는 농가들의 피해가 크고, 유통의 혼란이 채란업계를 뒤흔들 것이라는 우려때문 이었다. 정부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실시지역을 축소하고 1년동안 시범실시를 한후 본사업을 모색해 나가기로 생산자들과 합의를 도출하였다. 합의내용을 보면 12월 12일부터 대구집하장 1곳에서 실시되 판매장은 4개소(대형백화점, 대형마트, 소형마트, 재래시장)에 한정해 1년동안 시범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시범실시기간 동안 분기별로 평가를 하고 1년후 나온 결과를 최종 검토하여 추후 본 사업에 대해 결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시범실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대구경북양계농협 대구집하장에는 현재 2명의 등급판정사가 1일 7천개(전체 물량의 5%) 정도의 계란에 대해 등급을 판정하고 있다.

등급판정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면 농가(3개 농가)에서 수집한 계란을 롯데(계군)별로 분류해 집하장에서 1차 선별, 세척, 건조하고 실금란 등을 선별한 후 등급판정에 앞서 계란 난각에 마킹작업을 하게 된다. 계란에는 등급판

정확인 표시, 집하장명, 생산자 번호, 계군번호, 등급판정일자가 찍힌다. 등급판정 마킹 작업이 끝난 후 중량선별을 하고 롯트별로 5-7%에 해당하는 계란을 무작위 표본추출하여 본격적인 품질등급을 실시한다. 이렇게 표본 추출된 계란은 기존 선별기를 축소해 놓은 선별기(시간당 6천개 가능)에서 이루어지며, 투광검사를 끝낸 계란은 표본추출된 계란의 2-3%에 대해 할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등급이 매겨진 계란은 정해진 규격에 의한 포장작업을 거친 후 출하되어 판매되고 있다.

판매처는 대구 시내의 백화점, 할인 매장 뿐만 아니라 칠곡의 대형마트 등 10여군데에 납품을 하고 있으며, 판매되고 있는 계란은 10개, 15개들이 난좌에 포장하여 1+와 1등급만을 시중에 내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내의 하나로 마트에서 거래되는 계란 가격을 보면 1+등급의 경우 특란이 2,260원으로 같은 상표로 판매되는 일반란(1,250원) 보다 2배정도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나머지 1등급은 일반란과 거의 같은 가격에 판매되

고, 2, 3등급은 일반란 보다 낮은 가격에 책정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시범사업의 진정한 의미

계란등급제 실시는 생산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좋은 계란을 생산하고도 잘못된 제도로 인해 낮은 가격에 계란이 판매되었을 경우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제도분석 및 자료수집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범사업은 판매장을 늘리고 판매물량만을 늘리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초에 4개소로 한정 판매하여 시범실시키로 했던 것과는 달리 대구, 칠곡 등 백화점이나 매장 10여곳에 납품하고 있으며, 재래시장은 유통상 어려움을 들어 판매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 경북양계농협에서는 처음에 4개소를 선정해 추진키로 하였으나 거래하고 있는 일부판매점에서 “왜 경쟁업체인 다른 업체에만 판매하느냐”는 항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구에 있는 매장에 대부분 입점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 설명하고 있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등급판정소에서는 등급판정사가 등급만 찍으면 되었지 유통까지 책임질 수는 없으며, 유통문제는 집하장에서 알아서 해야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시범사업이라는 기본적인 취지에는 거리감이 있는 상태로 무조건 해놓고 보자는 발상에서 온 무책임한 결과라는 것이 생산자들의 입장이다. 리콜 등 조합의 손실분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애초에 시범사업을 하는



▲국내에서 최초로 계란등급제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대구경북양계농협 대구집하장(1일 14만개의 처리 물량중 7천개정도의 물량이 등급판정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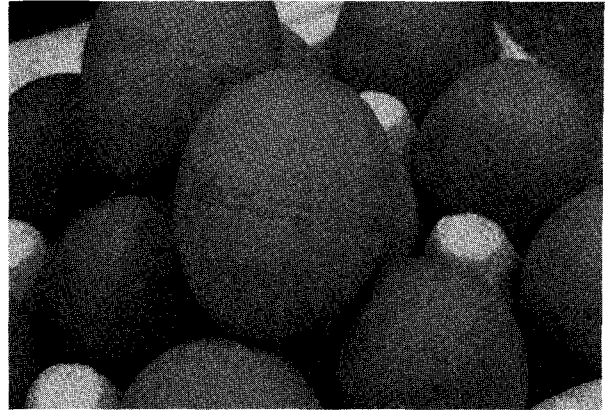
대행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손실분)까지 감안을 하여 자금을 지원하든지 시범사업의 취지를 살리는데 노력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시범사업은 각 등급별 출현율, 소비자 반응, 수익 등의 사전 데이터를 마련하여 본 사업을 실시했을 때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그러나 조합에 계란을 내고 있는 3개 농가의 경우 30~40주령에서 생산되는 계란을 받고 있으며, 집하장에 도착하기 전에 농장에서 미리 1차적으로 나쁜 계란을 선별한 후 집하장으로 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등급의 출현율이 80%가 넘는 이유도 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산되는 계란도 다양한 계군을 선택하여 전체 계란을 대상으로 등급판정을 해야하며, 1+, 1, 2, 3등급 계란도 판매장에 진열하여 소비자들의 반응은 물론 판매경향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고, 판매장도 시범사업인 만큼 한정적으로 제한하여 이에대한 정보를 취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판매망 확보를 위해 중구난방식으로 매장을 넓힐 경우 정확한 데이터를 뽑기란 더욱 어려워 질 수가 있다.

### 3. 여건 마련이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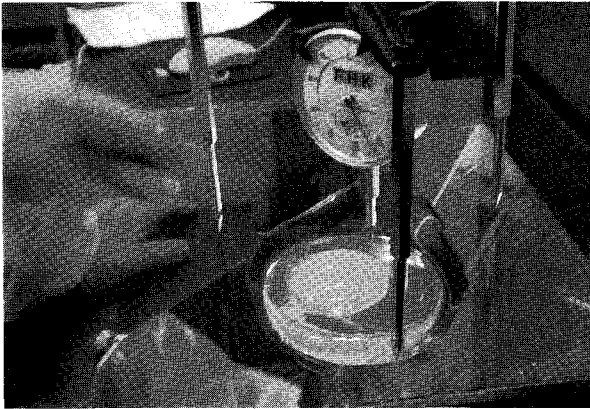
정부는 집하시설을 갖추고 계란등급을 원하는 농가는 누구나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년 말이나 내년에는 참여업체를 늘려 확대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생산자들은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는 제반여건과 분위기가 마련될 때까지는 현실적



▲등급판정 계란의 난각에는 등급판정확인 표시, 집하장명, 생산자 번호, 계군번호, 등급판정일자가 찍힌다.

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선적으로 계란집하를 할 수 있는 집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집하장 운영은 지역 농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경우 공동출자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경영지원까지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계란은 등급을 받는 순간부터 품질이 하락되기 때문에 콜드체인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신선한 계란을 보관, 이송할 수 있는 시설과 운송수단이 뒷바침되지 않을 경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가공시설의 미흡도 지적되고 있다. 일본과 같이 업소·가공용이 47%에 달할 정도로 가공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경우에는 리콜계란이 발생하여도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하지만 가공처리 시설이 미흡한 국내 현실은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시범사업에서 50%가까이 반포되는 현실을 경험한 이상 이 문제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본다. 마킹과 관련하여 보면 계란마킹기를 기존의 GP시설에 설치할 경우 20만개를 기준으로 볼때 1,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난각에 등급판정 표시가 새겨진 후 5-7%에 해당하는 계란에 대해 투광검사 및 활란검사가 이루어져 등급판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계란마킹기가 설치되어 있는 집하장이나 농장은 손에 꼽을 정도로 미미한 실정이므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따라주지 않으면 사실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집하장시설 확충, 냉장시설 확충, 마킹기계 설치, 가공시설 및 제품개발 등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 등급제는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며, 국민들에게 좋은 품질의 계란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4. 수입억제 위해 Cost를 낮추어야

정부에서는 수입관과의 차별화를 내세워 등급제를 시행하게 되면 수입억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자들은 등급판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원가가 높아짐에 따라 일반 계란보다 2배 비싸게 판매되는 현실에서 소비자들은 오히려 싼 계란을 찾게 되고 이로 인해 수입계란이 더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에서도 현재 등급제 시범실시를 위해 판

정사를 제외하고 작업인부를 별도로 총원했으며, 리콜이 이루어지는 비율도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원가상승에 따른 경영비 부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이 된 계란은 32원에 액란공장으로 처리되고 있어 생산자들이 받고 있는 100원 보다 3배나 낮은 가격에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라 큰 낭비가 아닐 수 없다. 현재는 공급되고 있는 물량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리콜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공급물량이 늘어날 경우 충분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포장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 한 예로 일본의 경우 포장비용이 개당 3원꼴(5%)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개당 12원(15%)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생산비만 높이고 있는 꼴이다. 따라서 생산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등급제를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5. 일본의 계란등급제는?

일본은 우리나라 보다 앞선 양계 선진국이다. 우리와 생활방식이 다르고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이며, 양계산업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나라중의 하나이다. 일본에서의 계란은 일반 야채와 같이 식품으로 취급되므로 대형매장에서는 1주일이 경과하면 반품처리를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반품처리되는 비율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2~3일 내에 모두 판매될 정도로 인기가 높은 식품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생산자들은 보다 위생적이고 좋은 계란을 생산하려는 의식이 높다. 이

같은 현상은 소비자들에 대한 계란의 안전성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원인이 있지만 생산자들이 식품으로서의 계란 생산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의 계란은 일반란과 특수란으로 이원화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상대적으로 특수란의 종류는 그리 많지 않으며, 일반란이 곧 위생란이라는 인식이 배어있다.

일본은 농가들이 공동출자한 집하장에 전문 경영인을 두어 농가에서 판매된 계란을 선별, 포장, 상품화하여 곧바로 매장에 납품을 한다. 물론 계란 포장지에 상미기한(생식 가능 기한)을 표기하여 유통을 시키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등급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놓고 있지만 판매는 자율적으로 소비자 구미에 맞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와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 6. 등급란을 특수란과 같은 개념으로 인식

양계농가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여론을 들어보면 지난해 10월 4개소에서 시범실시를 하



▲일반 매장에서는 등급계란이 일반 특수란과 같은 개념으로 소비자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려던 때와는 달리 계란등급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구집하장 담당자도 처음에는 등급제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었으나 홍보부족 등으로 인한 판매부진과 리콜물량의 증가로 조합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본 기자가 매장을 찾았을 때에도 소비자에 대한 홍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대구지역 하나로 마트에서 시범실시 초기에 5일에 걸쳐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벌였으며, 관심있는 언론사들이 흥미위주로 등급제 계란에 대해 방영하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매장을 찾는 소비자들도 등급란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상표와 가격을 보고 사는 정도이다. 홈플러스 매장에서 계란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K점원도 하루동안 선별과정 등 등급계란에 대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였는데 일시적인 소비증가는 볼 수 있었지만, 아직까지 소비자들이 크기와 가격을 보고 사는 경향이 커, 다른 특수란과 같은 계란으로 인식하고 있어 파급효과는 미미하다고 설명하였다. 하나로 마트의 직원에,

표1. 일본에서 정하고 있는 계란의 최대 보존일

보존온도(℃)	최대보존일(일)	보존온도(℃)	최대보존일(일)
10	57	24	22
12	51	26	19
14	45	28	16
16	40	30	13
18	35	32	11
20	30	34	9
22	26	36	8

최대보존일: 보존기간+냉장고 보관기간(7일)  
따라서 등급관정일자 보다 상미기간을 표시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등급관정일을 표기할 경우 리콜물량이 늘어나고 계란의 소비 둔화를 가져올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의하면 현재 판정일로 부터 15일을 유통기한으로 정하고 있으나 5일만 지나도 소비자들은 찾지 않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마킹하는 것이 소비측면에서는 유리할 것이라 언급하기도 하였다.

## 7. 맺음말

현재 등급제 시범사업은 겨울이라는 이점을 안고 실시되고 있다. 이제 비수기인 여름철을 맞게 되면서는 보다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리라 본다. 따라서 보다 주도 면밀한 계획하여 등급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생산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최대한 기울여 양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이끌

어가야 할 것이고 생산자들도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신선하고 위생적인 계란 생산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대다수의 생산자들에게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는 무용지물에 불과할 것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함께 노력해가는 길만이 계란등급의 참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제도개선 없이 무조건적인 확대 시행은 자칫 직원양성을 위한 제도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소지도 높은 것이다. 계란등급제에 들어가기 전에 위생적인 계란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은 물론 어떻게 하면 시중에 비위생적인 계란이 유통되지 못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양계**

깨끗하게 청소하여 질병에서 해방되자!

# 자동화 계사 청소대행

- 원적외선 산업 (맥반석, 견운모)
- 중추이송 케이지 주문제작

## 동 광 공 업

대표 : 최 성 태

사무실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전화 : (055)374-8461~2, 팩스 : (055)375-8461

휴대폰 : 011-374-8461~2